

# 대인예민성이 대학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Sensitivity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박민경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Min-Kyung Park(mkpark776@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인예민성과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학생의 사회적지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에 소재한 6개의 대학을 할당 표집하여 475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예민성은 사회적지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인예민성은 대학생생활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지지는 대학생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인예민성이 대학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대학생의 대인예민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대인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프로그램의 확대실시를 제언하였다.

■ 중심어 : | 대인예민성 | 사회적지지 | 대학생생활만족도 | 대인관계 |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a method of improving social support in college students by analyzing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sensitivity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475 students in six colleges located i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the collected data were used for analysis. The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statistic program. The major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terpersonal sensitivity negatively influenced social support. Second, interpersonal sensitivity negatively influenced college life satisfaction. Third, social support positively influenced college life satisfaction. Fourth, social support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sensitivity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These study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psychological counseling program for reducing interpersonal sensitivity of college students and improving social support and expand a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family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 keyword : | Interpersonal Sensitivity | Social Support | College Life Satisfaction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 I. 서론

대학생활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 수행과 더불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시기에 해당된다. 후기청소년기와 성인초기에 해당되는 사회 발달적 전환단계의 특성 때문에 가치관 정립, 진로 의사결정, 직업선택의 문제, 경제문제 해결, 이성교제 등의 다양한 과제와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에서 대학생들은 새로운 학업성취 문제와 확장된 대인관계 어려움, 심각한 취업난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서열화된 대학의 정책적 구조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대학생은 소속에서 이탈하는 위기를 겪기도 한다.

2015년 전국 4년제 대학의 평균 중도탈락률은 4.9% (대학정보공시)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의 중도탈락은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편입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도중에 포기하는 자퇴 등의 사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중도탈락률이 높다는 것은 그 대학이 보유한 교수, 강의, 시설, 복지 등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 중도탈락은 이들에게 실패의 경험을 줄 수 있으며, 진로와 취업 기회의 제한을 가져와 안정된 사회화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은 재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막대한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며[2], 사회적으로는 중도탈락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대학생 시기는 발달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이 성인으로서의 과업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인이 치러야 할 발달과업은 신체적 성숙과 문화적 압력의 두 가지 측면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일정시기마다 그 과업이 변화하게 된다. 즉 한 단계의 주어진 발달과업을 그 시기에 완수하고 나면 행복을 느끼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이후 단계의 발달과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3][4].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여 각 개인의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과업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생활만족도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어떻게 적응

하느냐가 중요하며 이는 학생들이 교과활동, 동아리활동, 기타 행사활동 등에서 자기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조화 있는 관계를 유지하여, 교수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를 말한다[5].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학업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 졸업이후의 사회적 적응을 돕고, 개인 및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개인 내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인예민성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신건강의 수준, 즉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불편감, 부적절감, 열등감 등의 부정적인 자기개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대인예민성이 높은 사람은 위협적인 단서에 대한 선택적인 민감성을 가지며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 그리고 타인의 애매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행동까지도 자신을 향한 의도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으로 해석하는 편향, 부정적인 상황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경향을 말한다[6][7]. 이러한 대인예민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학교생활 적응력이 낮아지며, 대인예민성과 부모자녀관계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8],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학교적응력을 증가시킨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사회성이 부족한 청소년은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상황을 회피하게 되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9],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0-14]를 통해 사회적지지 또한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지지는 대학생활에 대한 스트레스의 효과적인 완충제이며, 건강유지를 도와주는 보조제이자,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여 문제 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15-17]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때 대학생에게 있어 사회적지지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인예민성과 사회적지지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지지에 따라 대학생활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생활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인예민성을 조절하고, 사회적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그동안 아동과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지지 및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다양하게 축적되어 오고 있으나, 후기청소년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인예민성과 사회적지지, 대학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61]. 특히 아동, 청소년기에는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지만 대학생은 개인적인 대인관계 기술이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므로 개인적 변인인 대인예민성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 시기가 더욱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들이 많았지만, 본 연구는 개인내적요인인 대인예민성을 위험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사회적지지라는 사회적요인을 보호요인으로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인예민성이 높은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지지가 주어진다면 대학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인예민성이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하여 대학생들의 대인예민성을 조절하고, 사회적지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대인예민성은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대인예민성은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사회적지지는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대인예민성과 대학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II. 이론적 고찰

### 1. 대인예민성과 대학생활만족도

생활 만족도는 정신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한 인간이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살아온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을 말한다. 즉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중요한 목표를 성취했다고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변화에 잘 적응하여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18].

대학생활만족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적응 과정들의 정합[19]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과 일종의 태도이며[20]. 학교생활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이나 감정 상태[21]를 말한다. 대학생활 만족은 학생들의 학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각종 문제에 대한 태도, 교수와 학교에 대한 신뢰, 자신의 장래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22].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은 단기적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중장기적으로는 졸업이후의 사회적응 및 삶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3].

청소년기는 정서적인 불안정과 사회성의 부족으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되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며[9], 사회적 능력과 기술의 부족에서 오는 대인관계 문제로 학교부적응을 보일 수 있다[24].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은 교우관계에서 비사교적이며 내향적인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대인예민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예민하고, 수줍음이 많고 쉽게 당황하며 스트레스상황과 직면하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불편함과 고립감을 느끼며, 일반적 부적응과 자기비하의 경향을 가질 수 있고, 혼자 있거나 선택된 소수의 친구들과하고만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자기억제는 심한 반면 감정표현을 잘 하지 못 하고 권위적 대상에 대해 지나치게 수용적인 행동을 나타낸다[25]. 이러한 대학생의 대인예민성은 가족, 친구, 대학 선후배, 교수 등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대학생활만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만족도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에 더 만족하는 학생일수록 정신적인 압박을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대인예민성이 높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아짐을 보고한 연구[26][24][9]를 통해서도 대인예민성은 대학생활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대인예민성과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내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지지는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30]. 청소년에게 있어 사회적지지는 지원에 따라 영향력과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타인으로 사회적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은 친구, 가족, 교사와의 관계가 대표적이다[31]. 이처럼 결속력이 높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로부터 다양한 지지를 받을수록 개인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이 높고, 삶의 질 또한 높아진다[32].

대인예민성은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 과도하게 의식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33] 사회적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인예민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반응에 예민하고 수줍어하며 쉽게 당황해 하고, 스트레스 상황과 직면하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34]. 또한 사회적 불편감, 고립, 일반적 부적응, 자기 비하의 경향을 가지며, 혼자 있거나 선택된 소수의 친구들과하고만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부적절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매우 민감하고 불안해한다. 또한 자기 역제가 너무 심하여 감정 표현을 잘하지 못하고 권위적 대상에 대해 지나치게 수용적이기 때문에[34]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의 관계[35], 부모자녀관계가 대인예민성에 영향을 미치고[8], 청소년의 대인예민성과 사회적지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36][6]를 통해 대인예민성에 따라 사회적지지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6]은 대인예민성과 사회적지지의 관계에서 친구지지가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가족지지와 교사지지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인예민성을 포함한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본 [15]의 연구에서도 정신건강과 사회적지지 간에 부모지지와 교수지지에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인예민성이 높은 청소년은 사회적 갈등상황에서도 대인불안과 공격성이 높아지며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낮아져[37] 문제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대인예민성은 사회적지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대학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의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 3.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는 학생들이 속해있는 대학 환경에 대하여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인지적 기대의 충족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 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대학생활만족도는 향후 학생들의 창의적 학업활동에 영향을 주며, 각종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 교수와 학교에 대한 신뢰, 자신의 진로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22]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해야 하며, 학문적 환경은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25][35].

대학생들은 확대된 대인관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학생활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사회적지지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긴장을 완화시켜줄 수 있으며 대학생활의 적응을 증진시키는 심리 사회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지지는 개인으로 하여금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고 자기 자신이 귀하고 가치 있으며 의사전달과 상호관계의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를 의미한다[38]

[39]는 사회적지지를 정서적지지(신뢰, 애정, 감정이입, 친밀감), 평가적지지(수용, 긍정적 환류, 긍정적 자기평가), 정보적지지(사람들이 스스로 돕도록 돕는 것,

그들이 사회적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돕는 것), 도구적 지지(실제적 도움의 교환, 욕구 충족의 효과를 가지는 실제적 도움)로 정의하였다. [40]은 사회적지지를 자존감지지, 평가적지지, 소속감지지, 물질적지지 등의 4가지 차원의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자존감지지는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높이 평가되고 수용되고 있다는 정보로서, 자신의 가치와 경험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고양된다. 둘째, 평가적 지지는 문제가 되는 사건을 정의하고 이해하고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지지로서, 충고, 정보, 인지적지지라고도 한다. 셋째, 소속감지지는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낼 타인이 존재하는가를 의미한다. 소속감 지지는 개인에게 타인과 접촉하고 친밀해지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넷째, 물질적지지(유형적지지)는 경제적인 도움, 물질적인 자원 등을 포함하는 지지를 말한다[41].

사회적지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위와 같은 기능별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를 제공하는 대상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이에 [42]는 사회적지지를 크게 자연적 원조체계(가족, 친척, 친구, 이웃), 상호원조체계(자조집단, 지지집단), 전문가 원조망(성직자, 교사)과 전문가 원조체계(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0]의 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42]의 분류방법을 적용한 친구의 지지, 부모의 지지, 교수의 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사회적지지가 높은 청소년은 교사, 친구, 학교생활적응력이 함께 증가하며[43],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라 학교 규범에 대한 적응수준과 부정적 정서수준이 달라진다[27][29]. 특히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44][45]와 부모지지 및 교사지지정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15][45-47]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사회적지지는 대학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48][35], 스트레스 관리가 대학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49][35],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사회적지지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50][61][62]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대학생활만족도와 정신건강의 관계[25],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사회적지지의 관계[51]를 규명한 연구들을 고려할 때 사회적지지는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인예민성이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6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산진구, 금정구, 남구, 영도구, 사상구, 사하구에 소재해 있는 4년제 대학을 각 한 개씩 선정하여 6개의 대학에 각 90명씩 할당표집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516부 중에서 응답이 누락되거나 편향적인 응답을 한 41부를 제외한 47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구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과 정규분포성을 확인하였으며,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인예민성이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60]의 4단계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2. 측정도구

##### 2.1 독립변수: 대인예민성

(Interpersonal Sensitivity ; I-S)

대인예민성 척도는 청소년의 대인예민성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홉킨스 증상체크리스트(Hopkins Symptom Check List: HSCL)를 발전시켜 만든 SCL-90을 [52]가 번역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간이정신진

단검사(Symptom Checklist -90-Revision: SCL-90-R) 중에서 대인예민성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대인예민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편감, 부적절감, 열등감 등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대인예민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를 위한 Cronbach's  $\alpha$ 값은 .872로 나타났다.

## 2.2 종속변수: 대학생활만족도

(College Life Satisfaction)

대학생활만족도 척도는 [22]와 [53]이 사용한 도구 중에서 대학생 본인이 지각하고 있는 전반적인 대학생활만족도에 대한 3문항을 사용하였다. [53]은 대학생들이 자신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대학생활만족으로 정의하여, 다섯 가지 욕구를 제시하여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 대학환경에 대한 만족도,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의 3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만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를 위한 Cronbach's  $\alpha$ 값은 .735로 나타났다.

## 2.3 매개변수: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사회적지지 척도의 하위요인은 부모의 지지(10문항), 교수의 지지(10문항), 친구의 지지(25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54]가 제작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 : PACI)를 [55]가 번안하고 [56]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용과 청소년 자녀용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용 질문지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교수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의 지지와 같은 설문지에서 '부모님'에 대한 부분을 '교수님'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친구의 지지 척도는 [40]의 '대인관계 지지평가 척도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ISEL)를 기초로 [57]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재수정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친구의 지지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 등 4가지 유형을 포함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지지 척도의 각 문항은 사회적지지를 얼마나 지각하는 지에 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의 내적합치도를 위한 Cronbach's  $\alpha$ 값은 부모의지지 .939, 교수의지지 .841, 친구의지지 .975로 나타났다으며 전체적으로는 .918로 나타났다.

## IV. 연구결과

###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정규분포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329명(69.3%), 남성이 146명(30.7%)이었으며, 1학년이 171명(36.0%), 2학년이 179명(37.7%), 3학년이 48명(10.1%), 4학년이 77명(16.2%)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상위권 85명(17.9%), 중위권 281명(59.2%), 하위권 109명(22.9%)으로 나타났으며, 친구 수는 없음이 10명(2.1%), 1~2명이 72명(15.2%), 3~4명이 167명(35.2%), 5~6명이 103명(21.7%), 7명 이상이 123명(25.9%)로 나타났다.

대인예민성과 대학생활만족도, 사회적지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과관계의 가정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정규분포성(multi-variate normality)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일반적으로 다변량정규분포성을 검토할 때,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절대값의 크기로 평가하며, 왜도는 절대값 2이하, 첨도는 4이하인 경우에 정규분포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58].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가 1.5 이하로 나타나 정규분포성이 확보되었다.

표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량

변인	Min	Max	M	SD	왜도	첨도
독립변수 대인예민성	9	35	18.74	6.41	.349	-.871
종속변수 대학생활만족도	3	15	10.54	1.87	-.390	.544
매개변수 (매개변수)						
부모의 지지	10	50	33.41	8.28	1.224	-.141
교수의 지지	10	48	27.77	6.79	-.087	.136
친구의 지지	25	125	94.29	16.34	-.462	1.489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대학생의 대인예민성이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변수들 간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최소 .164에서 최대 .658로 나타나 회귀분석시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상관계수의 기준인 .80 이하[59]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수들 간의 공변성에 있어서도 유의수준 .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상호배타성이 확보되었다.

상관계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예민성과 대학생활만족도, 사회적지지의 모든 변수들에서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대인예민성과 교수의 지지( $r=-.423, p<.01$ ), 친구의 지지와 대학생활만족도( $r=.658, p<.01$ ), 부모의 지지와 교수의 지지( $r=.515, p<.01$ )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교수의 지지와 대학생활만족도, 교수의 지지와 부모의 지지, 교수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회적지지 중에서도 교수의 지지는 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와 부모의지지, 친구의 지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대인예민성	대학생활만족도	부모의 지지	교수의 지지	친구의 지지
대인예민성	1				
대학생활만족도	-.306**	1			
부모의 지지	-.326**	.415**	1		
교수의 지지	-.423**	.164**	.515**	1	
친구의 지지	-.360**	.658**	.453**	.183**	1

\*\* p<.01

3. 대인예민성과 대학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대인예민성과 대학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으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Baron & Kenny(1986)의 4단계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 이 방법은 먼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셋째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는 매개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관계에 있는지 분석하여 두 번째의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의 값이 마지막 단계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보다 큰지 여부를 비교하여 더 큰 값이 나와야 한다.

3.1 대인예민성이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대인예민성이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력( $\beta=-.277, p<.001$ )이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학업성적( $\beta=.113, p<.001$ )과 친구수( $\beta=.118, p<.001$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대인예민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VIF(분산팽창지수)계수를 통해 각 변수들의 상호독립성을 확인한 결과 1.014~1.026(10이하)이며 공차한계가 .974~.986 (0.1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잔차 간의 상호 독립성에 대한 Durbin-Watson계수는 1.875(2에 근접할 때 상호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1.5%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대인예민성이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

	B	$\beta$	t	공차	VIF	Durbin Watson
(상수)	157.785		32.057			
성별	-3.397	-.078	-1.778	.982	1.018	
학업성적	3.579	.113	2.592**	.986	1.014	
친구수	2.173	.118	2.686**	.976	1.025	1.875
대인예민성	-.870	-.277	-6.289***	.974	1.026	
$R^2 = .115$ adj. $R^2 = .107$ F = 15.202***						

g. 종속변수: 사회적지지  
p<.01, p<.001

3.2 대인예민성이 대학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대인예민성이 대학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표 4]와 같이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력( $\beta=-.275, p<.001$ )이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학업성적( $\beta=.213, p<.001$ )과 친구수( $\beta=.165, p<.001$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대인예민성이 높을수록 대학생생활만족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VIF계수는 1.014~1.026, 공차한계 .974~.986, Durbin-Watson계수는 1.854로 변수들 간 상호독립성이 확보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7.6%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대인예민성이 대학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B	$\beta$	t	공차	VIF	Durbin Watson
(상수)	9.709		21.966			
성별	.170	.042	.991	.982	1.018	
학업성적	.626	.213	5.501***	.986	1.014	1.854
친구수	.283	.165	3.903***	.976	1.025	
대인예민성	-.090	-.275	-6.497***	.974	1.026	
$R^2 = .176$ adj. $R^2 = .169$ $F = 25.171$ ***						

a. 종속변수: 대학생생활만족도  
p<.001

3.3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표 5]와 같이 부모의 지지( $\beta=.150, p<.001$ )와 친구의 지지( $\beta=.564, p<.001$ )에서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력이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학업성적( $\beta=.213, p<.001$ )과 친구수( $\beta=.097, p<.01$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교수의 지지는 대학생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으며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49.0%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B	$\beta$	t	공차	VIF	Durbin Watson
(상수)	1.440		2.365			
성별	.338	.083	2.484	.972	1.029	
학업성적	.418	.142	4.240***	.971	1.030	
친구수	.166	.097	2.874**	.963	1.039	
부모의 지지	.034	.150	3.528***	.599	1.669	
교수의 지지	.011	.040	1.034	.716	1.396	1.958
친구의 지지	.065	.564	15.029***	.774	1.293	
사회적지지 합계	.057	.617	17.965***	.960	1.042	1.969
$R^2 = .490$ adj. $R^2 = .484$ $F = 75.044$ ***						

a. 종속변수: 대학생생활만족도  
p<.001

3.4 대인예민성이 대학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대인예민성과 대학생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대인예민성과 사회적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표 6]과 같이 각 변인들을 다변량회귀식에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 6. 대인예민성과 대학생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모형1			모형2			모형3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7.957		21.788	9.709		21.966	1.820		2.791
성별	.304	.075	1.709	.170	.042	.991	.320	.079	2.348**
학업성적	.648	.220	5.013***	.626	.213	5.051***	.421	.143	4.285***
친구수	.327	.191	4.339***	.283	.165	3.903***	.162	.094	2.808**
대인예민성				-.081	-.275	-6.497***	-.018	-.062	-1.608
부모의지지							.034	.150	3.523**
교수의지지							.017	.062	1.510
친구의지지							.063	.546	13.974***
사회적지지합계							.054	.585	16.525***
$R^2$		.102			.176			.493	
수정된 $R^2$		.097			.169			.486	
$\Delta R^2$		.102			.074			.317	
F		17.923***			25.171***			64.911***	
Durbin-Watson									1.954

a. 종속변수: 대학생생활만족도  
p<.01, \*\*\* p<.001

모형 1은 성별, 학업성적, 친구 수가 대학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것으로 모형의 적합도 ( $F=17.923, p<.001$ )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10.2%를 설명하고 있다. 학업성적( $\beta=.220, p<.001$ )과 친구수( $\beta=.191, p<.001$ )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독립변수인 대인예민성이 대학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것으로 모형의 적합도 ( $F=25.171, p<.001$ )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17.6%를 설명하고 있어 모형 1보다 설명력이 7.4% 향상되었다. 학업성적( $\beta=.213, p<.001$ )과 친구수( $\beta=.165, p<.001$ ), 대인예민성( $\beta=-.275, p<.001$ )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매개변수인 사회적지지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독립변수인 대인예민성과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것이다. 모형의 적

합도( $F=64.911, p<.001$ )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49.3%를 설명하고 있어 모형 2보다 설명력이 31.7% 향상되었다. 모형 1, 2와 다르게 성별( $\beta=.079, p<.01$ )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면서 학업성적( $\beta=.143, p<.001$ )과 친구수( $\beta=.094, p<.01$ )의 영향력이 약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인예민성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사회적지지 중에서도 부모의 지지( $\beta=.150, p<.001$ )와 친구의 지지( $\beta=.546, p<.001$ )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사회적지지가 투입되면서 성별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학업성적과 친구수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의미하였으나 회귀계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며, 독립변수인 대인예민성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인예민성이 있는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지지를 매개하였을 경우에는 대인예민성의 부정적영향이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사회적지지 중에서도 친구의 지지와 부모의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천적 지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Baron & Kenny(1986)의 4단계 검증법에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의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의 값이 마지막 단계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보다 큰지 여부를 비교하여 더 큰 값이 나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7]과 같이 2단계의 독립변수인 대인예민성의 회귀계수가  $-.090$ 이었고, 4단계에서 대인예민성의 회귀계수가  $.018$ 로 나타나 2단계의 회귀계수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또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모형2와 모형3의 회귀계수와 비교하였을 때 대인예민성( $\beta=.094$ )의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감소하였으므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표 7. 분석결과 요약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독립변수 매개변수	대인예민성	대인예민성	사회적지지	대인예민성 사회적지지
종속변수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870^{***}$ (.138)	$-.090^{***}$ (.013)	$.057^{***}$ (.003)	$.054^{***}$ (.003)
Z			$-15.54$	

\*\*\*  $p<.001$

본 연구에서는 Baron & Kenny(1986)의 절차에 의한 매개효과 검증과 더불어 Z검증(Sobel-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Z=-15.54$ 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Sobel-test 결과값은  $+1.96$ 보다 크거나,  $-1.96$ 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보는데[60], 본 연구에서의 Z값은  $-15.54$ 로 나타나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가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이상의 검증결과를 통해 대인예민성과 대학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인예민성과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학생의 사회적지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설계되었다. 즉 대학생의 대인예민성이라는 개인 내적 특성이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적지지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학생활만족도가 향상되어질 것이라는 예측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6개의 대학을 할당표집하여 475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SPSS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대인예민성은 사회적지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예민성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36]과 [6]의 상관관계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대인예민성은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 과도하게 의식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33], 사회적 불편감, 고립, 일반적 부적응, 자기 비하의 경향을 가지며, 혼자 있거나 선택된 소수의 친구들과하고만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34]. 따라서 대학생의 대인예민성을 감소할수록 사회적지지의 수준이 올라가, 대인관계에서의 부적응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대학생의 대인예민성은 대학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예민성이 높은 대학생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대학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대인예민성이 높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아짐을 보고한 연구[9][24-26]와 같은 결과이다. 대학생활만족도는 학생들의 창의적 학업활동과 각종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 교수와 학교에 대한 신뢰, 자신의 진로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22] 때문에 대학생의 대인예민성을 조절하는 것이 대학생활 만족과 향후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대인예민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생의 사회적지지는 대학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49]와 [35]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중에서도 부모의 지지와 교수의 지지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친구의 지지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모의 지지 역시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교수의 지지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학이라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받는 조직에서는 교수보다는 친구와 부모의 지지가 개인의 대학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사회적지지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긴장을 완화시켜줄 수 있으며 대학생활의 적응을 증진시키는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39]하기 때문에 사회적지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생의 대인예민성이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정신건강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15]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인예민성이 높은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라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대인예민성이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통제변수인 학업성적과 친구수가 유의미

한 변수임이 증명되었고 사회적지지를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성별과 학업성적, 친구 수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즉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친구 수가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대인예민성이 낮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아질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친구의 지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부모의 지지 역시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 대학에서 긍정적인 친구관계 및 긍정적인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요인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개인 내적 요인인 대인예민성의 부정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지지를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대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대인예민성을 개선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인 대인예민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대학마다 학생상담센터를 통하여 개인별, 집단별 심리검사 및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의 각 학과에서 지도교수의 진로상담이나 교양과목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학 등 심리상담 관련 교과목의 비중을 늘리고, 개인별 심리상담 및 집단별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권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친구관계와 부모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대인관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지지 중에서도 친구의 지지와 부모의 지지가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친구관계와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각 대학의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재학 중인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

서 각 학과 차원에서 정규 교과목 수업시간을 할애하든지, 진로지도 시간을 활용하여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수업계획서에 포함시키는 등의 보다 적극적이고 확대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생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인 내적 요인인 대인예민성이 높은 대학생이라도 개인 외적 요인인 사회적지지를 높여주게 되면 대학생활 만족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환경적 요인, 즉 부모와 친구와의 관계, 학업성적 향상 등의 외적 지지요인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학술제나 축제 등을 통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년 2~3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고, 동아리 활동이나 스터디그룹 결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학교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예민성이라는 부정적 개인 내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회적지지는 환경적 요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사회적지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을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5개의 대학으로 한정하였기에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으며, 대학생활만족도를 위한 보다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지 못한 점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물리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연구대상을 지역적으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의 대인예민성과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사회적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실시를 제안하였다. 초기 청소년기의 초·중·고 학교생활과는 확연히 달라진 후기 청소년기의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하여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1] 경상일보(2016년 3월 7일자).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7523>.
- [2] 소병한, *전문대학의 신입생 증도탈락 현황 및 원인 분석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3] 이정윤,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4] 황윤경, *지방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대학생활만족도, 스트레스지각 및 스트레스대처방식 간의 관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5] *교육학 대사전*, 교육과학사 편집위원, 1996.
- [6] 김지애, *청소년의 대인예민성과 사회적지지가 등교거부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7] 이훈진, “편집증 집단의 자기개념과 주의 및 기억 편향,” *심리과학*, Vol.9, No.1, pp.77-99, 2000.
- [8] 홍영준, 이미경,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불안 대인예민성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Vol.21, No.10, pp.445-474, 2014.
- [9] 백운학, “초등학교 아동들의 등교거부경향에 대한 고찰,” *영남대학교 논문집*, Vol.14, pp.343-365, 1981.
- [10] 박진영, “지역대학 성인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학업탄력성, 자아 존중감의 영향력 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4, No.3, pp.47-75, 2012.
- [11] 박희수, 문승연,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8, No.3, pp.197-218, 2014.
- [12] 옥경희, “대학생들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 *광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 Vol.8, pp.21-37, 2002.
- [13] 이용호, 김희경, 김남승, “대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증상과 대학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The Journal of*

- Digital Polcy & Management, Vol.11, No.10, pp.483-492, 2013.
- [14] 현채송, “사회적지지와 문제해결력이 대학생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Vol.7, pp.27-41, 2004.
- [15] 김지현,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정신건강이 대 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6] 박재암,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수준, 스포츠 참여 수준 및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7] 문동영, “검도 수련자의 생활만족 및 사회적지지에 관한 분석,” 대한검도학회지, Vol.22, No.1, pp.36-49, 2004.
- [18] R. L. Kalish, “Late Adulthood: Perspective on Human Development, Berkely,” Calif: Cole Publishing Co. P. 1, 1975.
- [19] W. Wilson,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 Vol.67, pp.294-306, 1967.
- [20] 유상구, *체육수업과 여가활동의 연계지도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21] 안현숙, “대학생의 웰니스, 대학생생활만족 및 학습몰입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2, pp.494-502, 2015.
- [22] 김준곤, “대학생활만족도의 차원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 학생생활지도연구소, pp.35-49, 1991.
- [23] R. M. Ryan and E. L. Deci, “Self- 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55, No.1, pp.68-78, 2000.
- [24] 신원수, *인지적 대인문제해결 훈련이 등교거부 경향성 아동에 대한 문제 해결사고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25] 이혜경, *대학생의 대학생생활만족도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26] 박영배, “등교거부아의 잠재적 원인분석,” 진주교대 논문집, Vol.13, pp.76-95, 1987.
- [27] 김광웅, “아동의 성격특성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Vol.19, No.1, pp.1-27, 2006.
- [28] 김세원, *사회적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29] 용란숙, *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30] 이종연, 이재신, “피로함 경험을 가진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연구논집, Vol.4, pp.47-75, 2001.
- [31] W. Furman and D. Buhrmester,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1, No.6, pp.1016-1024, 1985.
- [32] 최엽위, *사회적지지가 중국 도시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국 하남성 정주시 노인을 중심으로*, 서울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33] P. Boyce and G. Park, “Develoment of a scale to measure interpersonal sensitivity,” Austraiasian Psychiatry, Vol.23 No.3, pp.341-351, 1989.
- [34] 권석만, *현대이상심리학*, 학지사, 2005.
- [35] 김나영, *대학생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대학생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 [36] 김덕건,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영향-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어린이문학교육연구, Vol.17, No.1, pp.351-371, 2016.
- [37] 홍창숙, *아동학대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편집성과 대인예민성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38] S. Cobb,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38, No.5, 1976.
- [39] J. S. House, “Social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 addison-Wesley, 1981.

- [40] S. Cohen and H. M. Hoberman, "Positive event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13, pp.99-125, 1983.
- [41] 최애선,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42] Marvin R. Goldfried, Padawer, Wendy and Robins, Clive, "Social Anxiety and the Semantic Structure of Hetero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93, No.1, 1984.
- [43] 이재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청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 Vol.22, pp.51-89, 2000.
- [44] 류경희,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Vol.41, No.21, pp.147-168, 2003.
- [45] 박운순,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46] 구자은,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47] G. A. Bernstein, S. L. Warren, E. D. Massic, and P. D. Thuras, "Family dimensions in anxious-depressed school refuser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Vol.13, No.5, pp.513-528, 1999.
- [48] 김동연, *의대생들의 대학생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49] 김정남, 류미경, 박경민, "일부지역 대학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대한보건연구*, Vol.25, No.1, pp.29-42, 1999.
- [50] 하주영,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및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Vol.17, No.2, 2010.
- [51] 강석화,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52]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정신과외래환자의 간이 정신진단검사: SCL-90-R의 진단별 특성," *정신건강연구*, Vol.1, pp.150-168, 1984.
- [53] 이수연, 박은혜, "스마트폰 활용 멘토링 프로그램이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도 및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체, 중복, 건강장애연구*, Vol.58, No.4, pp.169-193, 2015.
- [54] H. L. Barnes and D. H. Olson,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Olson, D. H., et al. (eds.)," *Family inventories*, (pp.33-48),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1982.
- [55] 민하영,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정의 응집성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56] 황미현, *중학생의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정적 정서와의 관계: 긍정적 또래관계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57] 박지원,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 [58]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구조방정식으로 논문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59] 이종환,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의 이해와 적용*, 공동체, 2008.
- [60]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61] 오지현,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대학생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10, pp.873-884, 2014.
- [62] 이명진, 이정민, 이진민, 최봉준, 전진호, 손혜숙, "여대생의 사회성과 대학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8, pp.300-309, 2012.

저 자 소 개

박 민 경(Min-Kyung Park)

정회원



- 2004년 2월 : 신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2015년 3월 ~ 현재 :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이사

<관심분야> :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상담학, 노인복지학